

취약계층 난방비 대책 발표

군산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6개 사업... 47억원 지원

군산시가 취약계층 등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에너지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6일 고물가·고금리에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등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특별지원 대상에는 제외된 관내 153개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4개소의 아동양육시설에도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하여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어 난방비 전기세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매출 3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유흥·사행성 업종, 법인·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고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한정되며, 지원금액은 업종 상관없이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한파·대설 등 겨울철 위기상황에서 난방비 증가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시설원에능가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8천만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취약 노인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난방비 사업과 농가 계층 면세유 가격인정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약 13억원 규모의 시비

매칭을 통하여 더욱 폭넓고 두터운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가스·전기 등 난방비 급등으로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어려움은 즐거움보다 함께 하기 쉽다"는 말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항상 뜻을 모으고 함께 해주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에 이어 난방비 폭탄까지 많은 시민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참으로 안타깝다"며 "군산 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항상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두 개의 소폭 지원에 그치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난방비 지원을 약속한 군산시는 3월중 세부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저소득 취약 계층 긴급 난방비는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예비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밖에 경로당 어린이집·아동양육 시설 소상공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5개 사업은 3월중 2023년 제 1회 추경이 성립되면 4월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 업무 실시하며 편의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거점기관 역할기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 군산시에 개칭

군산시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가 업무를 실시하며 편의성이 증대되고 있다.

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박정, 이하 신인공 서부지사)가 6일 오후 개칭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주요 인사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테이프 커팅식, 현판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인공 서부지사는 올해 1월 군산시에 신설되어 전라북도 14개 시·군 관할구역 중 서부권역 3개 시(군산, 익산, 김제)와 2개군(부안, 고창)을 관할하며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부와 자격시험부 2개 부서 18명으로 운영되며 직업개발훈련(근로자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훈련), 일학습병행 청년층 현장·

교육훈련 연계), 국가자격시험(제과·제빵기능사, 굴착기능사 등), 외국인고용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일부분을 제공하던 기존의 일학습센터와 비교하면 공단의 모든 업무가 직접 제공되는 것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전북서부지사의 신설로 서부권역의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군산시도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전북서부지사 개칭을 계기로 인적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진행 앞장

군산시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 불법적인 침해자료 유출 등 위반 현황 및 사례 △ 개인정보보호 업무 절차 책임 및 취급 주의사항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 사례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고영숙 정보통신과장은 "공직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부정이용, 무단 유출, 관리 소홀 등 중대한 침해나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소중한 시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농어촌공사 관계자 농업발전 유공 표창

군산시가 원예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이었던 첨단 복합영농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3년이나 앞당겼다.

이는 농업우수 수급문제로 원예산업이 부진한 부분에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유익수 부장과 유선호 차장의 선도적 지원을 통한 원예농업 기반조성에 대한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의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에 시가 제안한 첨단 복합영농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 추진을 위해 자체설계를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정현을 시장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할 것"

지역아동센터 중심 익산형 돌봄시스템 구축·서비스 다양화

정현을 익산시장이 새 학기를 맞아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산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다양화할 것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등 지역에서 추진 중인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개강 시점에 맞춰 지역 대학생 전입 활동도 적극 추진토록 했다.

정 시장은 대학교 신입생과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전입 가능한 인구를 파악해 전입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상황 변화에 대해 가능한 인구정책 수립을 거듭 강조했다.

시는 실질적 혜택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으로 전입한 대학생에 최대 100만원, 고등학생은 최대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학생들을 위해 열차 운임비 50%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 홍보를 위한 투어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시장은 "새 학기 신입생이 대거 유입되는 시점인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전입 활동을 적극 전개해달라"며 "이와 동시에 학생들과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직영 학교급식 새학기 '순항'

익산시가 처음으로 지역 전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 84개교를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학교급식이 순항 중이다.

시는 이달부터 공공성을 기반으로 설립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전체 학생 3만1850명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및 로컬푸드 등 지역 생산 우수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그간 식재료 공급이 불안정한 농촌지역 공동구매회비는 재단 법인을 통해 식재료 전품목 안정적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일 학교급식 공급 개시일에 학교급식 담당부서인 농산유통과 전과정을 모니터링해 배송 및 현장 점검 등 미흡한 점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추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